

여성정치지도자의 패션컬러를 통해 본 휴먼이미지 연구

Human Image Analysis Through Fashion Color of Female Political Leaders

김세아, 장성호
건국대학교 휴먼이미지학과

Se-A Kim(rlatpdk93@naver.com), Seong-Ho Jang(peace313@hanmail.net)

요약

21세기는 사람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의 이미지를 디자인함으로써 개인 내면의 숨겨진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켜 줄 수 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이러한 사회는 이제 빠르고 복잡함보다는 배려와 공감, 이해심, 소통의 여성 리더십이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큰 기업에서는 여성 최고 경영자가 선출되는 것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40%를 육박하고 있다. 여성리더십의 향상과 함께 여성 지도자의 패션은 주목받고 있으며 장소와 상황에 적합한 패션 컬러는 여성 지도자에게 중요한 이미지 전략 중 하나로 쓰여 진다. 본 연구는 시각 이미지이자, 감각 언어인 컬러 이미지를 통해 여성 정치 지도자의 패션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이 패션컬러를 통해 제시하는 휴먼이미지를 분석한다.

■ 중심어 : | 휴먼이미지 | 여성정치지도자 | 패션컬러 | 색채이미지 | 이미지전략 |

Abstract

21st century has become an era can design human's image. By designing the each human's images it is possible to express the hidden abilities of their mind. Modern society changes rapidly where the elements such as consideration, sympathy, understandings, and female leadership of communication emerge as a spur rather than speediness or complexity. In a lot of global conglomerates, it is very common for women to be selected as CEO, and even more, the rate of woman who are the member of Congress is almost 40%. The fashion of female leader has come to the fore with an improvement of female leadership, and the fashion colour which is suitable to P.O has been developed as a significant image strategy. I am going to conduct the research and analyse the fashion of a female political leader through the colour image which is equivalent to a visual image and sensitive language. I will analyze the human image which female leaders present through fashion colors.

■ keyword : | Human Image | Female Political Leader | Fashion Color | Color Image | Image Strategy |

1. 서론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이러한 사회는 이제 빠

르고 복잡함보다는 배려와 공감, 이해심,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이 혁신적인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0년대 이후 여성이 대통령 또

접수일자 : 2017년 08월 25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0월 06일

교신저자 : 장성호, e-mail : peace313@hanmail.net

는 총리가 된 나라는 10여 개국이 넘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으로 큰 기업에서는 여성 최고 경영자가 선출되는 것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40%를 육박하고 있다[1]. 미디어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외적 이미지는 자신을 대변하는 도구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그 중 현대정치에서 색채는 중요한 상징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 정치 지도자들은 장소와 상황에 맞는 패션을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대변하기도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나 패션 컬러는 그들의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컬러는 패션 이미지를 이루는 디자인의 기본 요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이다. 개인의 기호, 개성, 심리상태를 표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패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제공한다[2]. 메스컴을 통해 자주 노출되는 정치인들의 경우 때와 장소에 맞는 패션 컬러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 연출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은숙[3]의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연구'는 여성 정치지도자의 패션이미지에 관해 설문조사 후 진행 된 연구이다. 여성 정치 지도자의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성 지도자의 의상과 관련된 논문은 권현아[4]의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 장문[5]의 '중국과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스타일 연구' 이초[6]의 '중국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의 패션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이 있다. 여성 지도자 중에서도 퍼스트레이디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중국의 펑리위안과 미국의 재클린 케네디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었다.

컬러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윤주[7]의 '색채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이희재[8]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 윤호정[9]의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컬러에 나타난 이미지 표현 연구'가 있다. 이윤주[7]의 연구와 같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컬러 연구는 많으

나, 사람의 이미지에 관한 컬러연구는 미비하다. 윤호정[9]의 연구는 미셸 오바마, 케이트 미들턴, 카를라 부르니를 선정하여 세 나라의 퍼스트레이디 의상컬러에 따른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여성 패션 색채 분석이나 퍼스트레이디만의 패션컬러를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 장소와 상황별로 분류하여 대통령, 수상 등 여성 정치 지도자의 통합적인 패션 컬러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서양의 여성 정치 지도자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컬러이미지 분석과 함께 동양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 지도자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최근 5년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여성리더 100인' 중 정치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였다. 최근 5년간 1위를 지키고 있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2위로 선정 된 미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 로담 클린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외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 지도자와 국내 지도자의 비교분석을 위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기준은 현 시점을 반영할 수 있는 최근을 기준으로 동시대 활동 기간으로 한정했다. 앙겔라 메르켈은 세 번째 취임자인 2013년 9월 22일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힐러리 로담 클린턴은 2009년 1월 21일부터 대선후보로 나선 2016년 11월 8일까지,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사이트 www.naver.com의 사진과 국외사이트 www.google.com사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기사와 전문 기사 사진 중 전신이 모두 나왔거나 하의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장소와 상황을 국내활동, 국외활동, 개인 사생활로 구분 하였다. 정치 지도자는 국내·외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해외 각국의 수상들을 만나는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의 활동은 첫 공식석상, 국가 비상 사태연설, 각 나라 수상의 방문 등 국내에서 일어나는 공식적인 상황이 포함된다. 국외활동으로는 정상회담과 각 나라의 방문,

외교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때 국외 활동은 동북아시아, 미국·유럽, 중동·서남아시아로 나누어 공통으로 해당되는 장소로 선정하였다. 국내활동과 국외활동 모두 공식적인 상황으로 국내와 국외의 장소차이에서 나타나는 패션컬러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분류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 지도자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의 패션 컬러는 개인의 취향이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 여행과 휴가 등 정치활동과 연관되지 않는 개인 사생활로 총 세 가지 상황과 장소로 구분하였다.

표 1. 여성 지도자의 장소와 상황 분류

장소와 상황 분류	장소와 상황	설명
국내활동	첫 공식석상	세 여성 지도자의 첫 공식석상.
	국가 비상사태 연설	지도자들의 국내에서의 비상사태 연설로 선정.
	각 나라 수상의 방문	세 국가에 공통적으로 방문한 국가를 선정.
국외활동	동북 아시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한국과 중국, 일본등 국가에서의 외교활동.
	미국유럽	앙겔라 메리켈의 국가 독일과 힐러리 클린턴의 국가 미국을 선정.
	중동·서남 아시아	히잡을 쓰는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선정.
개인사생활	휴가	지도자 개인적인 여행.
	페스티벌 참여	정치활동과 연관되지 않는 축제, 날들이.

본 연구는 여성 지도자의 패션컬러를 통해 장소와 상황에 따른 알맞은 이미지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지는 것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이미지

패션에서의 이미지는 의복의 시각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 해석을 의미한다. 의복의 컬러를 포함한 시각적 요인들은 착용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

패션이미지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 변화될 뿐만 아니

라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 대중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패션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효과적인 이미지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로서 구성되는데 그 중 패션은 비언어적인 요소 중 하나로 총체적 이미지로 대변해 줄 수 있어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하다[10]. 한지은[10]의 연구와 같이 패션은 다양한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일 뿐 만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 시키기도 한다.

2. 컬러 이미지

컬러 이미지란 컬러를 통해 전해지는 느낌, 심상이다. 패션에서의 컬러는 착용자의 지위, 환경, 품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소리 없는 표현[11]언어이며 착용자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컬러 이미지는 사회현상과 정치적 이념 심리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컬러 일지라도 다양한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다. 컬러의 시각 효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감정을 만들어 낸다[12].

첫째, 빨간색의 정치적 이미지로는 독립적이고 혁명의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경사와 번영, 행운의 색으로 쓰이며,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색이며, 미국의 보수적 진영인 공화당의 상징색이며, 최근 한국에서는 보수당[10]인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으로 교체되었다.

둘째, 주황색은 패션에서는 젊음을 상징한다[13]. 또한 주황색은 명랑하고 활기찬 색으로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셋째, 노란색은 안전, 경고와 같은 주의의 색이기도 하지만 유쾌하고 희망찬 긍정의 색이기도 하다.

넷째, 연두색은 중성의 색으로 새싹과 같은 성장과 생명의 의미를 내포한다.

다섯째, 초록은 중립의 색이며 안전과 평화, 안보의 색이기도 하다.

여섯째, 파란색은 도시적이고 지적인 이미지 연출에 적합하다. 정치적으로 파란색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나

타낸다.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란색이다[10].

일곱째, 남색은 정치인들의 패션에 쉽게 활용되는 색이며, 정의와 헌신의 의미를 포괄한다. 어두운 파랑색인 남색은 힘과 권력을 느끼게 하는 색으로 침착하고 안정감을 준다[14].

여덟째, 보라색은 고급스러운 색으로 고귀함과 사치를 의미한다. 여성 정치인들에게 보라색은 우아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아홉째, 분홍색은 긴장을 풀어주는 색이다. 파스텔 톤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풍기게 하며 행복, 활기, 애정 등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자주색은 창의적인 색으로 자부심과 열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로맨틱하고 우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때 주로 사용된다.

무채색은 검정, 회색, 흰색이 있다. 검정은 여성 정치지도자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들의 패션과 예의를 차리는 장소에서 특히 빈번히 활용된다. 또한 남성성과 관습적이고 수수한 이미지로 나타나며 [15], 특히 서양에서는 근면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회색은 지적, 도시적, 보수적 등의 긍정적 이미지와 중립, 애매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13]. 흰색은 깨끗함, 안정성, 포기, 순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흰색과 검정의 조화로 정돈된 의례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며, 회색과 검정과 같은 배색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16].

3. 휴먼이미지와 정치적 메세지

21세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중들은 정치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외적 이미지는 자신을 대변하는 도구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현대 정치에서 이미지는 중요한 상징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지 전략이 필수적이 되면서 정치인에게 '성공적인 이미지 형성'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17]. 정치커뮤니이션 차원에서 선호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정치인의 기본 자질로[18]선택되어진다.

휴먼이미지란 사물에 국한되었던 디자인이 아닌 사람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이미지

를 디자인 함으로써 개인 내면의 숨겨진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켜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특별한 개인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감성적이고 기능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III. 여성 정치 지도자의 패션컬러에 나타난 이미지

1. 앙겔라 메르켈

1.1 국내 활동

표 2. 앙겔라 메르켈 국내활동

앙겔라 메르켈 국내활동			
패션			
	그림 1.[21]	그림 2.[21]	그림 3.[21]
상황	CDU 선거연설	긴급 정상회의	중국 총리 만남
장소	독일	독일	독일 베를린
이미지	신뢰감, 도덕적인.	승고한, 따뜻한.	친절한, 차분한.

[그림 1]은 2013년09월23일 CDU 선거 연설 상황에서. 선거 연설에서 메르켈은 파란색 자켓을 착용했다. 파란색은 서양과 동양에서 다른 이미지를 내포한다. 서양에서 파란색은 왕의 색, 성모마리아의 색에서 이제 검은색과 함께 '도덕적인'색[19]을 상징한다. 또한 정직, 신뢰감의 이미지도 내포하고 있다. 서양에서의 파란색의 의미와 같이 메르켈은 도덕적이며 신뢰감 가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2]는 2015년 4월 23일 긴급 정상회의 때 메르켈의 모습이다. 메르켈은 베이지색 재킷과 오렌지색 셔츠를 착용하였다. 베이지색은 승고함과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주황색은 활동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내포한다. 메르켈은 국가비상사태임에도 차분함을 나타냈고, 이와 함께 사상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이미지를

선보였다.

[그림 3]은 2017년 5월31일 중국 총리와 베를린에서의 만남을 가지는 메르켈의 모습이다. 분홍색은 애정, 활기의 색이자 친절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색이다. 메르켈은 파스텔 톤의 분홍색 자켓을 입었다. 중국과의 협력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이미지를 표출했다.

1.2 국외 활동

표 3. 앙겔라 메르켈 국외활동

앙겔라 메르켈 국외활동			
패션			
	그림 4.[21]	그림 5.[21]	그림 6.[21]
상황	가쓰야 대표 만남	오바마 대통령 만남	국왕과의 만남
장소	일본	미국	사우디
이미지	화합, 희망.	독립적인, 품격있는.	온화한, 차분한.

[그림 4]는 2015년 3월 10일 일본을 방문 한 메르켈의 모습이다. 이날 메르켈은 일본 야당 대표에게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메르켈은 한일 문제의 화합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란색은 민주화를 상징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희망과 낙관을 의미한다[10]. 또한 노란색은 화합과 희망의 색이다. 앙겔라 메르켈의 노란 자켓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화합과 결단의 메시지와 상통한다.

[그림 5]는 2015년 2월 9일 오바마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메르켈의 모습이다. 메르켈은 자주색 자켓과 검정 바지를 착용했다. 자주색은 보라와 빨강이 합쳐진 색으로 두 컬러가 가진 이미지를 내포한다. 빨간색의 독립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와 보라색의 온화하고 품위있는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메르켈은 오바마의 의견과는 상이한 의견을 표출하며 독립적이면서도 협상을 잘 풀어내고자하는 품위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자주색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나타내지는 독립적이

고 품격있는 이미지와 상등 한다.

[그림 6]은 2017년 4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해 살만 국왕과 만남을 가진 메르켈의 모습이다. 메르켈은 국왕과 무슬림 난민 수용, 여성 인권보호 등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 했다. 메르켈은 하늘색 단색 상의를 착용했다. 하늘색은 평정심과 평화의 색이다.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 평화의 대표 상징 컬러인 하늘색을 통해 차분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1.3 개인 사생활

표 4. 앙겔라 메르켈 개인 사생활

앙겔라 메르켈 개인 사생활		
패션		
	그림 7.[21]	그림 8.[21]
상황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휴가
장소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이미지	활동적인, 검소한.	화려한, 우아한.

[그림 7]은 2014년 8월 4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의 모습이다. 메르켈은 하늘색 바탕에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검정색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었다. 이 옷은 1996년, 2002년, 2014년 세 번의 사적인 장소에서 착용된 앙겔라 메르켈의 블라우스 이다. 평소 공적인 공간에서 단색의 자켓을 착용하는 앙겔라 메르켈의 패션과는 달리 다양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착용해 활동적이고 편안한 메르켈의 모습을 나타냈다. 유채색의 다양한 컬러 블라우스를 통해 외향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세 번의 같은 블라우스 착용한 앙겔라 메르켈의 검소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2016년 8월 1일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휴가를 즐기는 앙겔라 메르켈의 모습이다. 앙겔라 메르켈은 연보라색 동일 컬러의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였다. 2008,2010,2011년 앙겔라 메르켈은 오페라 페스티벌에

서 같은 보라색 옷을 착용하였다. 보라색은 여성 정치인들에게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우아하고 화려한 색상이다. 메르켈은 오페라 페스티벌의 분위기에 맞는 품위 있는 이미지를 나타냈다.

2. 힐러리 클린턴

2.1 국내 활동

표 5. 힐러리 클린턴 국내 활동

힐러리 클린턴 국내 활동			
패션			
	그림 9.[21]	그림10.[21]	그림11.[21]
상황	국무부 장관 취임 첫날	벙가지 사태 청문회	중국 국무위원 만남
장소	미국 국무부	미국	미국 워싱턴
이미지	신뢰감, 도시적,	평정심, 평화.	기품있는, 예의.

[그림 9]는 2009년 1월 22일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 장관 취임 첫날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부를 방문할 때 클린턴의 모습이다. 미 대통령은 클린턴 장관을 신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교를 통해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클린턴은 회색 바탕에 검정색 라인이 들어간 무채색 의상을 착용했다. 회색은 도시의 색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클린턴은 취임식 날 스마트 파워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마트 파워 외교란 버락 오바마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클린턴의 말은 버락 오바마에 대한 신뢰감을 표한다.

[그림 10]은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힐러리 클린턴이다. 클린턴은 초록색 자켓을 착용하였다. 시민의 색으로 대변되는 초록색은 번영과 발전, 성장의 색으로 생명과 자연에 관련되어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평정심과 평화의 색이며, 안보를 상징하는 군부의 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0]. 클린

턴은 초록색 재킷을 착용하여 그녀의 평정심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벙가지 사태에 대한 안정을 표했다.

[그림 11]은 2009년 7월 2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 국무위원 다이빙귀와 만남을 가진 클린턴의 모습이다. 클린턴은 검정색 바탕에 흰색 라인이 들어간 자켓을 착용했다. 검정색은 예의를 표하는 격식있는 자리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는 품위와 권위, 엄숙 등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흰색은 서양에서는 시작의 이미지가 강하다. 힐러리 클린턴은 엄숙한 장소에서의 품위와 예의를 표했고, 중국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2.2 국외 활동

표 6. 힐러리 클린턴 국외 활동

힐러리 클린턴 국외 활동			
패션			
	그림12.[21]	그림13.[21]	그림14.[21]
상황	아시아 4개국 순방 중 한국 방문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행사 참석	바르샤하 모스크 방문
장소	대한민국	독일	파키스탄
이미지	적극적인, 결연한.	예의, 따뜻함.	부드러운, 편안한.

클린턴은 취임 후 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국제 외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한국 방문 때는 열정적이고 강렬한 붉은 색 옷을 입었다. 이는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적극성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2009년 11월 9일 앙겔라 메르켈의 초청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검정 자켓에 빨간색 목도리를 매칭했다. 검정색은 격식 있는 장소에서의 품위와 예의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빨간색은 과시적인 색이지만 따뜻함, 즐거움과 같이 관대함, 포용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메르켈은 초청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장벽 붕괴행사에 대한 따뜻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그림 14]는 2009년 10월29일 파키스탄을 방문한 클린턴의 모습이다. 파키스탄의 바르샤히 모스크를 방문한 모습으로 파란색 머플러와 하늘색 재킷을 착용하였다. 하늘색은 평화, 부드러움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파란색은 정직, 신뢰감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갔다.

2.3 개인 사생활

표 7. 힐러리 클린턴 개인 사생활

힐러리 클린턴 개인 사생활		
패션		
	그림15.[21]	그림16.[21]
상황	나들이	산책
장소	미국 뉴욕 거리	뉴욕 차파qua 교외
이미지	편안한, 유쾌한.	차분한, 의연한.

[그림 15]는 2011년 8월 22일 미국 뉴욕 거리에서 산책하고 있는 클린턴의 모습이다. 클린턴은 흰색 바지에 노란색 셔츠를 착용했다. 노란색은 높은 이상에 대한 색이자 명랑함, 유쾌함, 편안한, 순수함 등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다. 메르켈과 같은 공식석상의 자리가 아닌 개인 사생활의 노란색 의상은 뉴욕 거리에서의 편안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림 16]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낙선한 다음날 산책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블랙 상의에 브라운색 하의를 입었다. 블랙은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서는 권위와 엄숙, 절제, 부, 권력, 품위, 고급스러움의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교외에서 산책을 하던 힐러리 클린턴의 상황과 장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분하고 의연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3. 박근혜

3.1 국내 활동

[그림 17]은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당시 박근혜 의상이다. 박근혜는 카키그린 자켓을 착용했다. 공식 취임식 코트로 입은 카키색은 우리나라에서 ‘국방색’이라는 애국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그만큼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카키색은 그린 계열로 안정감을 주면서 화합을 상징한다. 외국 여성 정치인들에게 카키그린 컬러는 회색, 베이지 컬러와 함께 중립 컬러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지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강하다.

표 8. 박근혜 국내활동

박근혜 국내활동			
패션			
	그림17.[21]	그림18.[21]	그림19.[21]
상황	대통령 취임식	국가적 비상사태	중국 국가주석 환영회
장소	청와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미지	애국적, 안정감.	결단력, 안전, 보호.	존중, 친근.

[그림 18]은 민방위 복을 입은 박근혜의 모습이다. 박근혜는 가뭄사태, 세월호 관련, 메르스 관련, 안보 관련 등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중대한 상황에 민방위복을 입었다. 박근혜는 북한의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 소집 국가 안전 보장회에서 민방위복을 입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노란색이 주는 결단력, 안전, 보호의 의미와 상통하며 희망과 활기를 되찾고자 하는 노란색의 이미지 전달력에 부합된다. 한국에서의 민방위복 노란색의 의미 또한 안전,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19]는 박근혜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회 날 박근혜의 모습이다. 중국에서의 붉은색은 경사와 번영, 행운의 색으로 쓰이며,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색이다. 나라에 따라 해석되는 색채 이미지가 상이하고 중국에서의 행운의 색으로 환영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는 존중과 친근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3.2 국외 활동

표 9. 박근혜 국외활동

박근혜 국외활동			
패션			
	그림20.[21]	그림21.[21]	그림22.[21]
상황	중국 국민 방문	백악관 정상회담	이란 국민 방문
장소	중국 베이징	미국 백악관	이란
이미지	부드러운, 온화한.	배려, 평화, 안정.	결단력, 안전, 보호.

[그림 20]은 2013년 6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오찬을 하기위해 중국 베이징에 간 박근혜의 모습이다. 분홍색은 애정, 활기의 색이자 친절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색이다. 메르켈 또한 중국 총리와와의 만남에서 파스텔 톤의 분홍색 자켓을 입었다. 박근혜는 중국과의 협력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표출했다.

[그림 21]은 2013년 5월 박근혜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다. 박근혜는 화사한 하늘색 컬러를 통해 환영과 예의를 표시하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컬러를 선택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나타냈다. 또한 평화의 대표 상징컬러라 할 수 있는 하늘색을 통해 한·미 관계의 안정을 표했다.

[그림 22]는 2016년 5월 이란 국민 방문에서 박근혜가 착용한 의상이다. 박근혜는 3일에 걸쳐 연두, 분홍, 흰색 의상을 차례로 착용했다. 이란의 국기색을 상징하는 의상을 착용했다. 박근혜는 이란에 도착한 첫날 연두색 의상을, 한·이란 정상회담 등이 있었던 이튿날에는 분홍색 의상을 입었다. 마지막 날에는 흰색 의상을 착용했다. 박 대통령이 연두색, 분홍색, 흰색 의상을 차례대로 입은 것은 이란 국기 색상인 녹색, 붉은색, 흰색에 맞춘 선택이었다[20].

이슬람 문화권에서 연두, 녹색은 예언자 무함마드에 경의를 표하는 컬러이다.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신

앙과 평화를 상징한다. 이란 문화 존중의 의미를 담아 중성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는 연두색 의상을 착용하였다.

3.3 개인 사생활

표 10. 박근혜 개인 사생활

박근혜 개인 사생활		
패션		
	그림23.[21]	그림24.[21]
상황	2013년 7월 휴가	2016년 7월 휴가
장소	대한민국 경남	대한민국 울산
이미지	차분함, 편안함.	단아함, 센스, 안정, 현대적인

[그림 23]은 2013년 7월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다. 경남 거제시의 저도 바닷가에 어울리는 남색 가디건을 착용했다. 무채색과 차분한 블루 계열의 컬러를 통해 자연 경관에 적합한 편안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 했다.

[그림 24]는 2016년 7월 울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다. 박근혜가 휴가지에서 착용한 흰색 셔츠이다. 흰색이 주는 안정의 이미지와 검정이 주는 권력의 이미지가 조화롭게 연출 됨으로써 단아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선보였다.

IV. 결론

여성 지도자 자리에 있는 앙겔라 메르켈, 힐러리 클린턴, 박근혜는 대중들의 다양한 시선과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패션과 이미지는 더욱 주목 받는다. 상황과 장소에 알맞은 패션 컬러를 통해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여성 정치 지도자의 패션컬러를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

았다. 상황과 장소에 따른 패션컬러를 통해 나타내는 세 여성 정치 지도자의 휴먼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 정치 지도자의 컬러를 통해 본 휴먼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국내활동의 첫 공식석상의 경우 서양의 메르켈과 클린턴은 신뢰감과 도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차가운 색, 무채색을 착용했다. 동양의 박근혜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색이라고 상징하는 녹색을 통해 애국적이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메르켈은 베이지색과 주황색을, 클린턴은 초록색을 박근혜는 노란색을 착용했다. 메르켈은 숭고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클린턴은 평정심과 평화의 이미지를 박근혜는 결단력과 안전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중국 수상의 방문에는 메르켈은 분홍색을, 클린턴은 검정색을, 박근혜는 빨간색 의상을 착용했다. 모두 다른 색상의 의상을 입었지만 친절, 예의, 존중 등 방문을 환영하는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국의 활동 시 세 여성 지도자는 방문하는 국가의 상징색을 통해 예의와 존중의 이미지를 표출했다.

개인 사생활의 패션 컬러에서 본 메르켈은 다양한 유채색의 조합으로 화려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클린턴은 단색의 유채색, 무채색의 의상을 입어 편안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박근혜는 무채색의 컬러를 통해 차분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컬러가 패션에 사용되었을 때 여성 지도자의 패션에서만 강조되는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컬러가 갖는 이미지가 패션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컬러에서 오는 이미지가 아닌 소재와 패션 아이템을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가 합쳐져 연출되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색채 이미지 뿐 아닌 문양, 아이템, 소재 등에 의한 이미지를 도출해 연구한다면 더욱 객관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서양의 문화와 감성, 상황과 장소에 따른 차이점 특히나 개인 사생활의 패션컬러에서는 여성 정치 지도자의 취향과 성격에 따라 패션 컬러 이미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는 지속적인 여성 지도자의 증가와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미디어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차별화된 정치 지도자로서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이미지 수립이 중요시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여성 정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실증적인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패션 컬러를 통해 장소와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이미지가 연출되기를 기대한다.

여성 정치 지도자 뿐 만이 아닌 남성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들의 계속적인 후속 연구들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이미지 수립이 구현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http://blog.naver.com/witch_doctor/40000333519.
- [2] 이희재,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3] 임은숙,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 권현아,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5] 장문, *중국과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스타일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6] 이초, *중국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의 패션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7] 이윤주, *색채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8] 이희재,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9] 윤호정,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컬러에 나타난 이미지 표현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0] 한지은, *21세기 여성 정치 리더의 패션 정치와 스타일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1] 이정주, 김기연, *패션과 이미지메이킹*, 서울 : 신광출판사, 2012.
- [12] 이진희, “컬러커뮤니케이션이 브랜드 이미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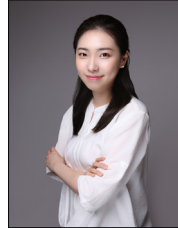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5, pp.154-162, 2012.

- [13] 김재영, 서혜경, 정연자, *이미지메이킹*, 예림출판사, 2012.
- [14] 김미현, *컬러진단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 예림출판사, pp.59-60, 2003.
- [15] 이미숙, 강윤희, “마가렛 대처의 파워 드레싱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 학회지, Vol.8, No.1, pp.132-148, 214.
- [16] 채금석, *패션디자인 실무*, 교문사, 1999.
- [17] 민보름, *한국의 이미지 정치와 정치 수사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8] 장성호, “UCC의 정치적 영향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3, pp.294-300, 2010.
- [19] 김유진, *공익 광고와 블루 컬러 이미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0] <http://www.fashionseoul.com/?p=111661>.
- [21] www.naver.com.

저 자 소 개

김 세 아(Se-A Kim)

준회원



- 2015년 8월 : 건국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디자인학사)
- 2015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휴먼이미지학과(인문석박사)

<관심분야> : 휴먼 이미지, 이미지 전략,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 뷰티 디자인.

장 성 호(Seong-Ho Jang)

정회원



- 2015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휴먼이미지학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국가정보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관심분야> : 정치변동, 시민사회와 NGO, 체제전환